

베스트셀러를 통해본 서점가 독서경향

역사인물소설 상위권 휩쓸고 번역물은 예년에 비해 약세

사상 유례없는 최대불황으로 일컬어지며 극심한 판매 부진현상을 드러냈던 올해 서점가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어떤 것들인가.

교보문고 종로서적 을지서적 등 서울시내 대형서점이 집계한 베스트셀러 목록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설 토정비결」 「소설 목민심서」 「소설 동의보감」 등 이른바 '역사인물소설' 류가 밀리언셀러로서의 성가를 높이며 올 한해동안 우리의 독서시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세상을 보는 지혜」 「동냥그릇」 「어느 꼬마의 마루미 이야기」 등과 같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배꼽' 류의 명상·지혜서적들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됐으며, 사회과학서적으로는 유일하게 「W이론을 만들자」가 독자들의 주목과 관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종래의 우리 베스트셀러시장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차지해왔던 번역소설은 올해의 경우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이채로운데, 지난해의 인기가 여전히 연장되고 있는 「중이시계」를 빼면 「금잔화」 하나만이 순위에 올라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 대신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벽오금학도」 등의 국내 창작소설들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세계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사회주의의 패배를 반영하듯 이념서적의 급격한 퇴조가 올해도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으며, 시집 부문에서는 80년대 중후반 이후 지속돼온 무명시인의 대중시집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수필집으로는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가 빅히트를 기록해 종래의 이른바 '여류수필'과는 다른 차원의 가능성을 열어보임으로써 주목을 끌었고, 아울러 하나의 출판장르로서 그 저변을 넓혀 갔던 SF나 추리소설의 경우는 출판종수나 물량에 비해 성공작은 드물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설자 붙은 소설' 큰 인기 끌어

이 가운데 '올해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책제목에 '소설'이란 수식어가 동원된 역사인물소설의 수퍼베스트셀러화현상. 토정 이지함의 생애를 다룬 「소설 토정비결」(이재운, 해냄)을 비롯해 의성 허준의 일생을 다룬 「소설 동의보감」(이은성, 창작과비평사), 다산 정약용을 다룬 「소설 목민심서」(황인경, 삼진기획) 등이 대표적이는데, 올해 우리의 베스트셀러시장을 앞장서서 이끈 트로이카라고 할 만한

이 '소설'자가 붙은 소설들은 두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이 작품들이 모두 그동안 평단이나 독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생소한' 작가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명을 동원한 역사소설로서 흔히 가지기 마련인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 사이의 간극이 지나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그것.

이중에서도 특히 두번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사상 실존했던 인물들의 소설화 작업이 갖는 의의는 충분히 평가돼야겠지만 그것이 단지 '소설'이라는 이유로 역사적 사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그것들이 학문적으로 엄밀한 평정이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나, 독자로서 읽기에 부담이 덜하고 작가로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설'이 '이용'당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명역사소설 속에 간직된 건강한 대중물로서의 가능성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일련의 역사인물소설들과 함께 소설부문에서 주목할 만한 판매량을 보인 것 가운데 하나가 양귀자의 장편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 1990년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박완서의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와 같은 계열에 놓여 있는 여성소설로 이해될 수 있는 이 작품은 올 후반기에 첫선을 보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급 연간 베스트셀러순위에 올라 만만찮은 인기를 끌었는데, 「여성에게로 향해지는 일상적인 학대가 자연스럽게 은폐되고 이해되는 남성중심의 사회를 공격하는」 주인공의 「과격한 테러」가 인상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종의 선도소설이라 할 수 있는 「벽오금학도」(이외수, 동문선)는 최인호, 이문열 등과 함께 작가의 이름 자체가 '민을만환상표'로 인식되곤 하는 데 따른 베스트셀러화현상의 한 예로 해석되고 있다. 「금잔화」(경요, 홍익출판사)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낯선 대만 작가의 멜러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으나, 군소출판사들의 중복 및 모방출판 경쟁으로 씩씩한 뒷맛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체형 지닌 평범한 사람 이야기

비소설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업가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책이 상위권에 올랐는데, 럭키금성그룹 구자경 회장의 「오작이 길밖에 없다」(행림출판)가 종로서적 1위,



올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집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역사인물소설'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에 있다.

을지서적 2위를 기록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김우중),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정주영)의 뒤를 이어 기업가 자서전 베스트셀러화현상의 맥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들 책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 등의 집단구매가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베스트셀러로 일컫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들이다.

그런 점에서 비소설 부문의 올 최대 화제작은 「W이론을 만들자」(이면우, 지식산업사). 이른바 '신바람의 이론'으로 지칭되는 한국적 경제학, 우리 식의 경영이론을 주창함으로써 매스컴과 독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던 이 책은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광범한 호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비소설 부문에서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왔던 수필집의 경우 올해는 예년과 달리 특이한 경력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고백을 담은 책들이 인기를 끌며 이채롭다. 14세 연하의 독일남자와 재혼해 자신있게 살아온 닥종이 인형작가 김영희의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디자인하우스)가 그중 대표적인 경우로, 사랑과 고독, 고향과 여행 등을 '시적'으로 이야기하던 종래의 베스트셀러 여류수필에 비해 이 책은 생활과 체험을 '산문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대조를 이룬다. 여류는 아니지만, 17세 유학생의 고달프지만 당당한 미국 체험을 담은 신세용의 「나는 한국인이다」(장원), 남한으로 귀순한 북한총각 김용의 「머리를 빼는 남자」(자작나무) 등도 마찬가지로 꼽을 만하다.

크리슈나무르티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에

서 비롯돼 「성자가 된 청소년」을 거쳐 지난해 라즈니쉬의 「배꼽」으로 한 정점을 보인 명상·지혜서적은 사고의 과편화와 책임의 극홍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여전히 인기를 끌며 베스트셀러로서의 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배꼽」(장원)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상위권에 올라있는 외에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동지)가 새롭게 베스트셀러 순위에 랭크돼 있는 데서 보듯 이제 이 방면의 책들은 우리의 베스트셀러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터줏대감으로 자리잡고 있는 느낌이다.

예년과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기는 시집 부문도 마찬가지. 문학적으로 평가받는 기성시인의 작품보다는 얼굴 없는 무명시인의 대중시집들이 두드러졌는데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긴 제목들이 유행, 서정윤의 「홀로서기」 이후 진행된 시집 대중화가 통속화로 치닫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예반, 대흥), 「마지막이란 말보다 더 슬픈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고은별, 성현),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하지」(원대연, 영운기획) 등이 대표적이며, 특이하게는 명상서적 번역가로도 잘 알려진 류시화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푸른숲)가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어 이채롭다.

—강철주 기자